

국제대 학술지의 통합배경과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최성두**

《목차》

- I. 서론
- II. 통합논의의 배경 : 학진 학술지 평가정책의 영향과 대응 필요성
- III. 국제대 학술지 통합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분석
- IV. 향후 통합학술지의 발전방향 제언
- V. 맺음말
- 참고문헌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학술연구 정보를 생산·축적·확산하고, '학술활동의 꽃'인 학술지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1998년 이래 한국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¹⁾)은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학진 학술지평가의 영향으로 기존 한국해양대 국제대학에서 발간되는 「인문사회과학논

* 본 논문은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연구보고서(2008)에 실린 저자의 연구보고서를 보완·발전시킨 글임.

**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부교수

1) 기존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9년 3월에 한국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법인과 3개 기관이 통합되어 현재 '한국연구재단'으로 되었음. 그러나, 본 논문은 학술지 평가정책의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과거 정책시행 시점의 기관명칭인 한국학술진흥재단(약칭 '학진')을 사용하였음.

총」이나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국제해양문제연구」의 논문투고 유인이 점점 감소되어 왔으며, 결국 두 학술지 모두를 현행대로 방치한다면 투고수요의 부족 때문에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하여, 국내·외 대학의 승진, 연구업적평가, 성과급 등 인사 및 보상규정이 대부분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을 그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국제대 발간 두 가지 학술지들을 학진 등재후보지로 격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현행 국제대학 발간 「인문사회과학논총」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발간 「국제해양문제연구」의 주된 기고자들은 국제대학 교수들이고 두 학술지의 정체성과 특성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구나 두 학술지를 통합하여 재정적으로 년2회 발간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발생되므로 국제대 통합학술지의 학진 등재후보지로서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통합학술지가 학진 등재후보지로서 그 위상을 획득하여 잘 운영된다면 대외적으로 국제대학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위상이 크게 격상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중심으로서 그 역할과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합학술지가 학진 등재후보지로 되면, 이를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제대학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대사회적 존립위상이나 학문적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대 학술지의 통합배경으로 외부환경적 측면으로 학진의 학술지 평가정책의 영향을, 내부환경적 측면으로 이러한 외부영향에 대한 국제대 교수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더 나아가 향후 국제대 통합학술지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안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는데, 학진 학술지 평가정책의 내용과 영향조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고, 국제대 교수 의견조사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려 한다.

II. 통합논의의 배경: 학진 학술지 평가정책의 영향과 대응 필요성

1. 학진 학술지 평가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학술지 평가사업이라 함은 지식경쟁시대의 국내 학술연구의 역량을 증진하고,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인정 및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학진에서 학술지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1).

학술지 평가사업은 1998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이에 앞서 정책연구용역으로 1994년 교육부 학술연구구성비 교육정책 특별과제로 「학술지평가 지표 개발 및 우수학술지 육성방안」(국민대 이가종 교수)과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과제 「국내 학술지 평가 모형에 관설편안」(연세대 한상완 교수) 등이 있었고, 이 방안」 결과를 토대로 면담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침이 마련되었고 1998년부터 학술지평가 사업을 공고하고 학술지평가를 시작한 바 있다.

1998년 이래 학술지 평가방식은 일부항목과 배점의 변경은 있었으나 큰 틀은 유지한 체로 2003년까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학술지 평가사업의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하였고 2004년부터 체계평가 부분을 자체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즉, 기존에 체계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학술진흥재단에서 이를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체계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학술지 발간주체 스스로가 공개된 세부기준을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점수와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1998년 이래 평가항목의 일부 항목이 조정되거나 혹은 배점이 조정된 적은 있지만 학술지의 체계평가(객관적 평가)와 내용평가(주관적 평가)라는 두 개의 큰 틀은 유지된 체 학술지 평가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물론, 2006년 이후 학술지 평가에 있어서 연구윤리의 강화라든지 혹은 학술논문의 인용빈도를 학술지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백종섭 외, 2008). 특히, 학술지의 질적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KCI 시스템에 따른 Kor-Factor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학술지 평가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Impact Factor지수를 개발하여 학술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다.²⁾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등재(후보)지는 총 1,435종(등재학술지 902종, 등재후보학술지 533종)이었고(이회식, 2006), 이를 학문분야별로 살펴 보면 인문 368종(등재학술지 230종, 등재후보학술지 138종), 사회과학 452종(등재 279종, 등재후보 173종), 자연과학 97종(등재 75종, 등재후보 22종), 공학 186종(등재 124종, 등재후보 62종), 의·약학 146종(등재 86종, 등재후보 60종), 농수산·해양 73종(등재54종, 등재후보 19종), 예술·체육 74종(등재 39종, 등재후보 35종), 복합 39종(등재 15종, 등재후보 24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문과 사회분야 학술지는 전체 등재(후보)지의 약 57% (인문 26%, 사회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의 연도별 지정 현황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등재학술지	-	-	-	109종	200종	278종	474종	690종	902종
등재후보학술지	57종	257종	392종	428종	477종	742종	702종	627종	533종
계	57종	257종	392종	537종	677종	1,020종	1,176종	1,317종	1,435종

*자료: 이회식(2006)

2006년말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회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단체는 2,393개로 각 기관별로 학술지를 1종만 발행하여도 약 2,400여종의 학술지가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대학부설 연구소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부설 연구소와 부설 연구센터 2,793개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고려해 볼 때 전국 규모의 학술지는 대충 3,500~4,000여종으로 추산되고 있다(이회식, 2006). 이는 1998년 학술지 평가를 시작할 당시 전국규모 학술지수를 약 450여종으로 추산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실로 국내 학술지의 양적 팽창이 급속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의 종수도 해를 거듭할 수록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 학진 보고서 「KCI기반 Ko-Factor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2007)에서는 KCI의 실 데이터를 적용한 시범 평가지표를 개발한 바 있음.

2. 학진 학술지 평가사업의 영향

학진의 학술지 평가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회와 연구소들은 자체 학술지의 체계를 정비하고 학술지의 내용을 향상시키는 기회로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를 전국의 대학들이 교수들의 업적평가 등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학술지 등재(후보)지화를 위한 학회나 연구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학진 학술지평가정책의 부정적 측면도 많이 발생되었다.

첫째,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가 국내 거의 모든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소속 연구원과 교수의 연구업적을 가늠하는 결정요소로 활용되고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문제를 비롯한 학자들의 신분문제와 연결되면서,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로서의 인정여부에 따라 교수의 연구업적이 결정되어 지식인 사회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학자세계에서 흔히 회자되는 ‘논문게재 아니면 퇴출(publish or perish)’이라는 말은 최근 경쟁원리와 경영마인드 도입된 대학에서 논문실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둘째, 학진은 학술지 평가사업의 결과를 학술단체 지원이나 연구업적 심사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학자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학진은 학술지 평가결과를 학술연구비 지원 및 연구결과 평가,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 학술연구업적 평가자료 정보제공과 연계하고 있다. 더하여, 정부와 대학들의 목표지향적 학술정책에 불을 지피는 것은 언론매체라 할 수 있는데, 국내 언론매체들은 SCI나 학진 등재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가 대학과 교수연구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고, 여기에 국내 대학별 순위와 소속 교수 1인당 논문 발행편수 등의 지표까지 덧붙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장덕현(2004)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마치 학자들은 논문수를 계산해서 상을 주는 ‘학문의 올림픽’에라도 출전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학문에서마저 올림픽 대표 선수선발과 같은 논리가 적용되면서, 사회 전반의 지적 수준은 향상되지 않은 채 소수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삼관왕, 사관왕이 되면 열광하고 포상하는 일이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셋째, 학문적 다양성이 억제되고 보수화되고 있다. 학진 학술지 평가사업은 학문의 새로운 경향과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재되지 못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학술연구의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잡글”로 취급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신기 위해 특정 학회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신생 혹은 군소의 학술지와 이를 발간하는 중소 혹은 비주류학회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결국 학계 전반에 새로운 경향의 등장과 성장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즉, 분과 학문의 다양성과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학문적·방법적 지향성에 대한 포용성이 없게 되어 학문의 보수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넷째, 현행 학진 학술지 평가의 기준들이 아무래도 대규모 학회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학회들은 원고를 찾아 헤매거나, 무리를 해서라도 등재저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곤란에 처하게 된다. 물론, 학진 학술지 평가기준의 적용으로 논문에 영문초록과 주제어 병기가 의무화되는 등 형식적 수준이 높아지고, 논문의 탈락률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이 강화된다든지, 학회지 편집에 있어 유사한 성격의 학회나 연구소들 간의 협력과 통합이 증대된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의 역사, 연간 발행횟수, 기관규모, 학술지 배포의 국제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실제 학술지평가에 있어서 소규모 연구나 전통적 방법을 탈피한 학문적 실험은 높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된다. 학진 등재학술지가 되려면 전국 규모의 대규모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라야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의 특성이나 구성원의 동질성을 자랑하는 소규모 학회나 연구회는 사라지고 전국 규모의 대형 학회들만 살아남고 있다.

다섯째, 현행 학진 학술지 평가기준은 학문분야별 특성을 무시하고 너무 획일적·일률적 잣대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학진에서는 모든 분야의 학술지를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학문 분야들간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미치게 되어 실로 학문의 지형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보다 단행본이 더욱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서양의 경우 인문학과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서지, 주해, 번역 등이 여전히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이들이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짧은 논문들보다도 오히려 낮게 평가되고 있

다. 물론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학술논문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이며, 연구결과의 수명이 짧고 유사연구의 가능성도 높아 출판의 시의성이 중요하고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일반성이 높아 유용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그렇지 않아 연구결과를 논문이라는 그릇으로는 충분히 담아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하고서야 비로소 연구가 일단락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여섯째, 학술지 평가과정에서 부조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학진 학술지 평가를 위해 ‘학술지 등급 높이기’와 ‘학술논문 게재를 둘러싼 부조리 문제’가 학계에 만연해 있고, 이에 따라 학술지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학회에서는 학술지의 등재를 위하여 서류의 조작, 가상 논문의 투고 등 부정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대립 학회의 평가점수를 절하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학진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대한 지원으로 필요 이상의 학회가 난립하게 되었고 학술지의 종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문간 교류를 막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김두식(2003)은 학술지 평가과정의 부조리와 이것이 학자세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되고 나니 당장 밀어닥친 어려운 숙제가 논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논문을 쓰는게 문제였다기 보다는 논문을 학술지에 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학술지’에 실린 글은 내용이야 어떻든 ‘논문’이 아닌 ‘잡문’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학자 한 분으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술지들을 평가해서 등급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다 보니, 이전에 글을 실었던 분들한테 모두 자기가 게재한 글의 3배수되는 분량으로 논문 제목을 적어내라는 부탁이 왔어요.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탈락률을 높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많이 탈락시켰다는 근거가 필요하게 된 거래요. 사실은 쓰지도 않은 엉터리 논문제목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 쉽지가 않아요.’

결국 보다 권위있는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탈락률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있지도 않은 논문 제목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논문제목들을 3배수로 적어내게 되면 그 학술지는 탈락률이 무려 70%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술지가 학술진흥재단의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것

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끝내 진짜 좋은 학술지에 명함조차 내밀어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법학논문집인 Law Review에 실린 개성있는 저자들의 논문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우리나라에서였다면 이게 과연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하는 웃기는 질문을 여러 번 던져 보았습니다.

일곱째, 학진 등재학술지 우선주의라는 신화(myth)가 발생하였다. 실제 아무리 다양한 범주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해도 학진에 등재된 학술지만이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수록 논문들이 모두 우수한 논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빈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나 학진이 이러한 “등재지 우선주의”를 금과옥조로 받드는 이유는 학술지 평가의 결과 등재리스트에 포함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이 아무래도 우수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 평가와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도 실제 논문의 인용빈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된다.

여덟째, 대학과 연구소 논문집, 기념논문집, 대중적 학술지 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쇠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대학의 양대 학술지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더구나, 높은 학문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학문성은 다소 낮지만 현장지향성 등 의미있는 학문적 실험을 통해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많은 대중적 학술지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이미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 국제대 통합학술지의 대응방향 : 학진 등재후보지의 세부 평가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진 학술지 평가정책은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긍정적 기여 측면이 매우 크고 더구나 이러한 학진 학술지 정책의 기초가 당분간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 국제대 통합학술지는 학진평가 등재후보 학술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되 최우선적으로 학진에서 제시된 신규 등재후보지 평가기준을 충족시켜 나가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학진의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지침」에 의하면,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

술지의 평가체계의 기본틀은 크게 학술지 발행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평가와, 학진의 패널심사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평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년 학진에서는 그 해의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을 발표하고 있다. 학술지평가 합격의 기준은 각 평가단계별로 평가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의 경우가 있을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등재후보 선정에서 제외되고, 평가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에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다. 또한,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후 1년 이후부터 매년마다 계속평가 실시하고, 2년 연속 80점 이상 득점인 경우 등재학술지로 인정되지만, 반대로 2년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재후보학술지에서 탈락되고, 70-79점인 경우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계속 유지된다.

〈표 2〉 학진 등재(후보)지 평가체계의 기본틀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문항수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객관적 평가)	학술지 발행기관 제출 자체평가서를 평가	10문항	45점
학술지 내용평가 (주관적 평가)	학진 패널심사위원회에 의한 평가	등재4문항/등재후보지5문항	55점
계		14(15)문항	100점

한편,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에는 2년 이후부터 매 2년마다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실시하고,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하고, 80점이상 득점인 경우 등재학술지로 유지된다. 그리고, 학술지가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SCI, SCIE, SSCI, A&HCI, SCOPUS)에 등재되었을 경우 평가를 면제하고, SCI, SSCI, A&HCI는 등재학술지로, SCIE, SCOPUS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고 있다.

〈표 3〉 학진 신규 등재후보 학술지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1. 논문명, 저자, 초록, 주제어 부분 표기형태	4
	2.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15
	3. 연가 학술지 발간횟수	4
	4. 논문 게재율	5
	5. 논문투고자의 국내 · 외 분포도	5
	6. Cyber 출판여부	4
	7.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	3

학술지 내용평가	8. 편집위원 연구실적 및 전국성	3
	9. 편집위원의 중복성	1
	10. 연구윤리규정 제정 여부	1
	11개 항목	45점
	1.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5
	2.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학술활동	5
	3.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10
	4. 학술지 구성체제의 우수성	5
	5. 참고문헌(각주)의 완벽한 서지정보	10
	5개 항목	55점

국제대 통합학술지의 당장 목표가 되는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의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³⁾,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학술지 발행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자체 평가하는 체계평가 단계의 평가항목(배점: 총45점)에는 ① 논문명, 저자, 초록, 주제어 부분의 표기형태(4점), ② 학술지의 정시 발행여부(15점), ③ 연간 학술지의 발간횟수(4점), ④ 논문게재율(5점), ⑤ 논문투고자의 국내외 분포(5점), ⑥ Cyber 출판여부(4점), ⑦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3점), ⑧ 편집위원 연구실적 및 전국성(3점), ⑨ 편집위원의 중복성(1점), ⑩ 연구윤리규정 제정여부(1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학진의 폐널심사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평가 단계의 평가항목(배점: 총55점)에는 ① 게재논문의 학술지 가치와 성과(25점), ②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학술활동(5

3) 참고로, 1998년 학진의 학술지평가사업이 시작된 이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신규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항목 가운데 우선 체계평가는 12가지 평가항목과 총40점 배점이 있었고, ① 심사절차(2점), ②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3점), ③ 편집위원의 연구실적(3점), ④ 논문 게재율(9점), ⑤ 학술지 배포의 국제성(2점), ⑥ 등재하고 있는 색인이나 DB의 명성/ Cyber출판여부(3점), ⑦ ISSN 부여(1점), ⑧ 정시 발행(5점), ⑨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4점), ⑩ 논문 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4점), ⑪ 학술지 역사(2점), ⑫ 기관규모(회원수 또는 전임연구원수) (2점) 등이 있었음. 다음으로 내용평가(배점: 총60점)는 또다시 분과위원평가(20점)와 주제전문가평가(40점)로 나누어지는데, 분과위원평가는 5가지 평가항목과 총20점 배점이었고 ①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4점), ②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4점), ③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대외활동(4점), ④ 수정제의 상세성과 구체성(4점), ⑤ 투고규정의 상세함과 구체성(4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제전문가평가는 4가지 평가항목과 총40점 배점이었고 구체적으로 ① 게재논문의 질 및 독창성(20점), ② 학술지의 전문성(12점), ③ 인쇄의 질 및 지면배정의 효율성(3점), ④ 논문초록의 질(5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그러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앞의 큰 틀에서 체계평가를 학술지 발간기관 자체보고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몇 가지 논문의 형식적인 요소가 평가항목으로 강화되었는데, ①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의 외국어표기, ② 편집위원 및 임원명단 및 소속 명시, ③ 제1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 등이 이에 해당됨.

점), ③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10점), ④ 학술지 구성체제의 우수성(5점), ⑤ 참고문헌(각주)의 완벽한 서지정보(1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국제대 학술지 통합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양대 국제대 학술지의 발간경과 및 특징

그 동안 국제대학에는 두 가지 학술지가 발간되어 왔는데, 국제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사회과학논총」과 국제대 소속교수들이 주요 구성원인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제해양문제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우선, 「인문사회과학논총」은 ISSN이 미등록된 채 1994년 창간부터 현재까지 발간중이고, 그 발간경과는 <표4>에서 보는 것처럼 1994년 한국해양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호가 발간된 것이 시초이고, 1997년부터 발행처가 단대명의 변경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학술지명도 「사회과학연구논총」에서 현재의 학술지명인 「인문사회과학논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 단대명의 변경으로 발행처가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국제대학으로 변경되었다.

발간경과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으로 1998년에는 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6호를 발간했다는 점이라든지 1996년의 「사회과학연구논총」 4호의 발간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게재논문의 편수 측면에서 학진 평가사업이 실시된 1999년 이전과 비교해서 학진 학술지평가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에 10편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응하여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는 한·중 국제해양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게재논문 편수를 보충하였고, 2009년에는 정년퇴임기념 논문집으로 편수를 보충한 바 있다.

〈표 4〉 국제대학 학술지의 발간경과

발행처	학술지명	권호	발간연월일	논문편수	비고 (특징)
한국해양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호	1994. 2. 28	-	
"	"	제2호	1995. 1. 16	13	(표지)1995 봄호
"	"	제3호	1996. 2. 16	10	(표지)1996 봄호
-	-	-	-	-	-
한국해양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논총	제5호	1997. 12. 31	10	(표지)1997. 5호
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총	제6호	1998. 12. 30	8	(표지)1998. 6호
한국해양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논총	제6호	1999. 2. 18	13	(표지)1999. 6호
"	"	제7호	2000. 2. 18	10	(표지)1999. 7호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	제8호	2001. 2. 18	7	(표지)2000. 8호
"	"	제9호	2002. 2. 18	8	(표지)2001. 9호
"	"	제10호	2003. 2. 21	8	(표지)2002. 10호
"	"	제11호	2004. 2. 21	11	(표지)2003. 11호
"	"	제12호	2005. 2. 21	10	(표지)2004. 12호
"	"	제13호	2006. 2. 27	12	(표지)2005. 13호 제1회 한·중 국제해양학술대회 (발표논문 6편, 일반논문 6편)
"	"	제14호	2007. 2. 26	13	(표지)2006. 14호 제2회 한·중 국제해양학술대회 (발표논문 6편, 일반논문 7편)
"	"	제15호	2008. 2. 26	15	(표지)2007. 15호
"	"	제16호	2009. 2. 26	10	(표지)2008. 16호 신종철·박옥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다음으로, 「국제해양문제연구」는 2000년에 국제대학에 존재하던 3개 연구소(해운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해양문화연구소)의 통합 및 구조조정이 실시된 이후 새롭게 ISSN 등록번호를 취득하여 발간되기 시작한 학술지이다. 그러나, 국제대 연구소 통합 이전에 1987년부터 1999년까지 11차례 학술지를 발간했던 해운연구소의 「해운연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 학술지의 역사는 1987년부터 보아야 적합하고, 실제로 「국제해양문제연구」는 「해운연구」 제11집에 이어서 제12집부터 창간 발간되었다.

연구소 학술지 발간경과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2002년에 연구소 통합후 대학본부에서 넉넉하게 지원된 지원금 덕분에 학술지가 년2회 발간한 점이라든지, 또는 2004년과 2005년에 잡지명을 「해양과 이슈」로 변경하고 유가잡지(권당 12,000원)로 외부출판사에서 발간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2006년부터 「국제해양문제연구」에 기획특집을 편성하여 매년 기획논문 4~8편을 실었다. 게재논문 편수 측면에서 연구소 예산이 풍족했던 2000년 초기에는 논문심사 실시와 더불어 게재료 지급 등 우수논문을 유인하는 방법과 보다 많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그 후 예산지원금의 감소와 더불어 점점 해마다 논문편수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아래 <표5> 참조).

<표 5>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학술지의 발간경과

발행처	학술지명	권호	발간연월일	논문편수	비고 (특징)
한국해양대학 해운연구소	논문집	제1집	1987	-	
:	:	:	:	-	
한국해양대 부설 해운연구소	해운연구	제10집	1998. 12. 30	7	
"	"	제11집	1999. 12. 20	9	
한국해양대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2권1호	2001. 1. 31	8	3개연구소 통합후(해운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해양문화연구소) 잡지명 변경 및 ISSN 등록
"	"	제13권1호	2002. 2. 26	13	
"	"	제14권1호	2002. 8. 28	10	년2회 발간
"	"	제14권2호	2002. 12. 30	7	년2회 발간
"	"	제15권1호	2003. 12. 30	7	
한국해양대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양과 이슈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6권1호)	창간호	2004. 12. 30	7	유가잡지화, 전망출판사 발간, 잡지명 복수화
"	해양과 이슈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7권1호)	제2호	2006. 2. 22	11	"
한국해양대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1호	2007. 2. 27	12	기획논문8편, 일반논문4편
"	"	제19권	2007. 12. 31	10	기획논문4편, 일반논문6편

2. 학술지 통합관련 의견조사 결과분석

2008년도 국제대학 발전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양대 학술지의 통합 및 학진 등재후보지화’에 관한 의견조사를 국제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다(최성두, 2008). 설문조사 시기는 2007년 11월 6일부터 동년 12월 11일까지이었고, 국제대학 교수 총 44명(총 49명중 연구년·안식년 교수 5명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가운데 총 34명 교수의 설문응답지가 회수된 바 있다(설문지회수율 77%).

설문응답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직급별로 정교수 47%, 부교수 20%, 조교수 27%, 전임강사 6%이었고, 둘째 전공계열별로 법정계열 27%, 상경계열 50%, 인문어학계열 23%이었고, 셋째 연령별로 56세 이상 6%, 46~55세 56%, 35~45세 38%이었고, 넷째 근속연수별로 16년이상 27%, 11~15년 21%, 6~10년 17%, 5년이하 35%의 분포를 나타냈다.

의견조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의 13가지 구체적인 세부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학술지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로서, 세부적으로 양대 학술지 통합에 대한 찬·반여부, 학술지 통합의 반대이유, 통합학술지의 명칭, 통합학술지 발간주체, 통합학술지 예산통합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둘째, ‘통합학술지의 운영 및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조사로서, 세부적으로 통합학술지 전공분야 정체성 방향, 등재후보지화를 위한 년2회 발간에 대한 찬·반여부, 통합학술지 편집위원회 구성방법, 통합학술지 편집위원장 임명방안, 통합학술지 편집위원회 규모 등을 질문하였다. 셋째, ‘통합학술지의 등재후보지화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로서, 세부적으로 통합학술지 등재(후보)지화를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충방안, 통합학술지의 등재(후보)지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대외적 벤치마킹 대상 학술지 등을 질문하였다.

1) 국제대 발간 양대 학술지 통합에 대한 의견

응답자들은 국제대 발간 「인문사회과학논총」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발간 「국제해양문제연구」의 통합에 대하여 찬성의견 79.4%, 반대의견 20.6%을 나타냄으로서 대부분 학술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학술지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등재후보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11.8%), ‘학술지 통합이 거의 현실적

으로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5.9%), '성격이 서로 다른 학술지이기 때문에'(2.9%) 등의 이유로 학술지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술지의 명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무응답(missing data)이 29%로 가장 많았고, 연구소 발간 「국제해양문제연구」로 하자는 의견이 26%, 국제대학 발간 「인문사회과학논총」으로 하자는 의견이 12%이었고,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학술지 이름을 짓자는 의견으로 「한국해양연구」와 「해양인문사회과학논총」이 각각 18%, 15%을 나타냈다. 설문결과로 보면 어느 명칭도 절대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국제해양문제연구」로 통합학술지의 명칭을 시작하되 향후 구성원간의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더 좋은 통합학술지의 명칭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합학술지의 발행인으로 국제대학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공동발행인으로 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5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대학 단독 발행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 반대로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단독 발행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논총」 발간비용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제해양문제연구」 발간비용을 통합하여 통합학술지의 사업예산으로 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79%가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2) 통합학술지의 운영 및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통합학술지가 미래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전공분야 정체성(identity)에 대하여, 응답자의 74%가 '해양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문학술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14%의 응답자는 소수의견이지만 '인문사회과학분야 종합학술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통합학술지의 발간횟수를 학진 등재후보지의 기본요건인 년 2회 발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거의 다수인 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4) 양대 학술지 발간예산 통합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3%이었고, 무응답자(missing data)는 18%이었음.

5) 통합학술지 연 2회 발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응답자는 3%이었고, 무응답자(missing data)는 9%이었음.

통합학술지의 편집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하여 응답자의 79%가 '일정 비율 외부 타대학 교수들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⁶⁾ 더하여, 편집위원들은 등재(후보)지 인정기준에 맞는 연구역량을 갖춘 국내·내 인사들도 구성해야 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합학술지 운영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편집위원장을 선출 혹은 임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매우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학장과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국제대학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방안'(38%)과 '국제대 교수 혹은 연구소 운영위원이 추천하고 국제대학장이 임명하자는 방안'(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국제대학장이 임명하자는 방안'(6%)과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하자는 방안'(3%)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통합학술지 편집위원의 적정규모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6~10인 (61%), 5인이하 (18%), 11~15인 (6%), 16인이상 (3%)의 순으로 의견을 나타냈다. 그래서, 통합학술지의 편집위원회 규모는 대체로 6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규모인 것으로 사료된다.

3) 통합학술지의 등재후보지화 방안에 대한 의견

통합학술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에 대하여, 응답자는, 아래 <표6>에서와 같이, '논문 투고자의 전국성과 국제성 확보'(17%), '편집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전국성 확보'(16%), '계재논문의 질, 전문성, 서지 정보, 초록(영문포함), 주제어 등의 구비'(15%), '투고·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15%), '학술지의 정시 발간 및 연간 발간횟수 확대'(14%), "논문계재율의 제고 및 적정 탈락률의 유지"(7%), '학술지의 발간역사 및 회원수 확대'(3%) 등을 중요한 요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6) 통합학술지 편집위원들을 내부 구성원인 국제대 교수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통합학술지의 등재후보지화를 위한 우선순위 사업

등재후보지화를 위한 필요사업	의견 비율
논문투고자의 전국성과 국제성 확보	17%
편집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전국성 확보	16%
게재논문의 질, 전문성, 서지정보, 초록(영문포함), 주제어 등의 구비	15%
투고·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	15%
학술지의 정시 발간 및 연간 발간횟수 확대	14%
논문게재율의 제고 및 적정 탈락률의 유지	7%
학술지의 발간역사 및 회원수 확대	3%

통합학술지의 등재(후보)지화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예산확충방안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학술지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방안’(32%), ‘국제대학 기성회계 가운데 학술지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방안’(25%), ‘등재후보지 선정후에 투고료와 발간료를 징수하는 방안’(15%),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사업수입금(예: 책발간)을 확충하는 방안’(9%)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향후 국제대 통합학술지가 등재(후보)지가 되기 위하여 모범사례로 벤치마킹(benchmarking)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술지로서 응답자들이 추천한 것에는 서울대학교 어문연구소의 「어문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 부산대학교 지중해연구소의 「유럽연구」 등이 제시되었다.

IV. 향후 통합학술지의 발전방향 제언

향후 국제대 통합학술지가 재정·편집·조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단기적으로 학진 등재후보지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학지 등진지로까지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연구·검토되고 단계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1. 학진 등재후보지의 기본적 구비요건 충족

앞서 검토한 것처럼 국제대 양대 학술지가 통합한 이유는 대외적으로 학진의 학술지

평가 정책과 대내적으로 국제대학 소속 교수님들 다수의 통합의사와 학내·외 학술지 평가기준의 변화 때문이었다. 즉, 국제대 양대 학술지를 통합하여 단기적 목표로 학진 등재후보지 학술지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국제대 학술지통합의 정당성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향후 통합학술지가 학진 신규 등재후보 학술지로 되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표3>의 학진 등재후보지 평가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학진 등재후보지의 평가체계는 크게 객관적 자율평가인 체계평가 45점과 심사위원 패널에 의한 주관적 평가인 내용평가 55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체계평가 분야는 평가항목별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점수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학진 등재후보지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이다. 반면에, 내용평가 분야는 심사위원 패널에 의한 주관적 점수이고 점수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등재후보지가 되려면 체계평가 부분과 내용평가 부분을 모두 합쳐 70점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체계평가 분야에서 40점을 획득했다면 내용평가 분야에서 55점중 30점 이상을 획득하면 등재후보지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내용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5가지 가운데 ‘계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25점)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항목 즉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학술활동’(5점),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10점), ‘학술지 구성체계의 우수성’(5점), ‘참고문헌(각주)의 완벽한 서지정보’(10점) 등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점수획득이 가능한 요소들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통합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노력만 한다면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⁷⁾

구체적으로 학술지 체계평가 부분에서 거의 만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학진 등재후보지의 기본요건 구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명, 저자, 초록, 주제어 부분의 표기형태에서 영문과 국문 모두를 갖추어서 4점 만점을 획득해야 한다.⁸⁾ 둘

7) 1998년이후 학진 등재후보지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선정율 70-80%), 국제대 통합학술지 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지들도 학진 등재후보지로 되기 위하여 정상 학술지가 구비해야 하는 기본요건들을 구비한다면 거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그 이후 등재지로 되고 또한 그것을 유지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학술지 계재논문의 가치라든지 혹은 학술지의 학문적 정체성과 같은 평가요소를 보완할 수 있어야 등재지로서의 지위를 획득·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8) 구체적인 점수는 다음과 같음; ①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부분이 모두 외국어로 표기

째, 학술지를 정시에 발행해서 15점 만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⁹⁾ 셋째, 학술지 발간횟수를 처음에는 년 2회 발간하지만 차츰 년3-4회 발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4점 만점중 2점이상을 획득해야 한다.¹⁰⁾ 넷째, 논문게재율은 연간 투고건수를 50건 이상으로 하고 논문게재율이 6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5점 만점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¹¹⁾ 다섯째,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를 부산·경남 외의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고 외국기관에 논문 투고자가 있도록 함으로써 5점 만점 가운데 3점이상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¹²⁾ 여섯째, 학술지 및 논문이 사이버(cyber) 상에서 제공되도록 국제

시 4점, ②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중 일부(3가지)만 외국어로 표기 시에는 3점, ③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중 일부(2가지)만 외국어로 표기 시에는 2점, ④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중 일부(1가지)만 외국어로 표기 시에는 2점, ⑤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부분이 모두 국문으로 표기 시에는 1점, ⑥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표기가 불규칙한 경우 1점임. ⑦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중 일부가 학술지상에 표기가 안된 경우 0점임.

9) 학술지 정시발행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학진에서 평가하고, 평가기간은 계속 평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으로 하고, KCI에 입력된 일자와 규정에 정해진 날짜와의 오차를 계산함. 다만, 규정이 없거나 발행일까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은 계속평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의 현황과 지난 발행실적과 상호 비교 평가하고, 상호 비교 평가 시 오차일수를 계산하며, “월”만 명시된 경우와 미 발행 된 경우에는 해당 월 일수만큼 오차를 산정 하고, “월말” 로만 규정 되어 있는 경우는 평균 10일의 오차 를 산정함. 점수 부여기준(규정상에 월, 일까지 모두 명시된 경우에 2점 부여)는 다음과 같음: ① 0점 : 오차일수 90일이상, ② 1점 : 오차일수 81-90일, ③ 2점 : 오차일수 71-80일, ④ 3점 : 오차일수 61-70일, ⑤ 5점 : 오차일수 51-60일, ⑥ 7점 : 오차일수 41-50일, ⑦ 8점 : 오차일수 31-40일, ⑧ 10점: 오차일수 21-30일, ⑨ 11점: 오차일수 11-20일, ⑩ 12점: 오차일수 1-10일, ⑪ 13점: 정시발행임.

10)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평가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발간횟수를 기준으로 함. 점수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인문, 사회, 예술체육, 복합학분야는 년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이상 4점이고, ②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분야는 년2회 1점, 3회 2점, 4회 3점, 6회이상 4점임.

11) 논문게재율은 투고된 논문 중 실제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비율을 말하고, 논문게재율의 산정 공식은 $(A / (B + C - D)) * 100$ 임. 구체적인 점수부여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게재율	투고건수		
	50건 미만	50-100건 미만	100건이상
100% 이상	0점	0점	0점
90% ~ 99%	1점	1점	1점
80% ~ 89%	2점	2점	3점
70% ~ 79%	3점	4점	4점
60% ~ 69%	4점	5점	5점
59% 이하	5점	5점	5점

12)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논문의 주저자 소속기관 소재지의 분포비율로 계산하되, ① 투고자중 80% 이상이 1개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된 경우는 1점, ② 가장

대학 또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활용함으로써 4점 만점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¹³⁾ 일곱째,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를 3명으로 함으로써 3점 만점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¹⁴⁾ 여덟째, 편집위원회 위원의 연구실적과 전국성을 고려하여 임명함으로써 3점 만점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¹⁵⁾ 아홉 번째, 통합학술지의 편집위원이 다른 학술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임명함으로써 1점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¹⁶⁾ 열 번째,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함

많이 분포된 지역에 80% 미만이 분포된 경우는 2점, ③ 가장 많은 비율로 분포된 상위 2개 지역에 분포된 투고자 비율의 합이 70% 미만인 경우는 3점을 부여함. 한편, 논문 투고자의 10% 이상이 외국기관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 2점을 추가함.

- 13) 학술지 및 논문이 Cyber Web(PC통신 포함)상에서 유·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원문이 창간호부터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4점, ②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상으로 유상으로 제공될 경우 3점, ③ 원문이 외부기관(영리업체)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될 경우 2점, ④ 원문이 1년~3년(2005년부터 제공) 발행분이 제공될 경우 2점, ⑤ 초록만 제공할 경우 1점임.
- 14)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라 함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실제로 평균 몇 명이 투고 논문 1편을 심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 만일 심사결과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심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0점을 부여하고, 복수의 인원이 명시된 경우(예: 2-3명) 적은 수를 기준으로 하고, 투고된 논문 심사 과정이 없어 심사위원이 있을 수 없는 경우나 게재율이 100%인 경우는 0점을 부여함. 구체적인 점수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1명이 심사할 경우 1점, ② 2명이 심사할 경우 2점, ③ 3명 이상이 심사할 경우 3점임.
- 15) 편집위원의 전국성은 1점이고,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만 해당됨,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4개 지역(도) 이상에 분포되어 있으면 1점이고 외국의 경우도 1개 지역으로 인정함. 한편, 편집위원의 연구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의 '통합연구인력정보'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연구실적에 대한 증빙(발간년도, 저자명이 표시된 부분 복사본)은 재단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발표 논문, 학회 발표 논문, 연구 보고서, 역서 등은 1점(예술·체육학의 경우 1개의 작품을 1개의 논문으로 산정) 그리고 저서는 3점을 기준으로 편집위원의 연구 실적을 평가함. 공동저작은 저자의 순서에 상관없이 평가하고,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단독 100%, 2명 90%, 3명이상 80%임. 1점짜리 연구 실적과 3점짜리 연구실적을 따로 계산해 그 합을 해당 편집위원의 연구 실적 점수로 함. 평가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실적(예: 2007년에 신청한 경우 2005. 1. 1~2006.12.31 기간 중 발표된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함. 발간 년도가 기재되지 않은 저작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게재 예정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16) 편집위원의 중복성을 검토하는 기준은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만 해당되고, 편집위원 중복성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 기관은 등재(후보)학술지 만을 대상으로 함(등재(후보)학술지 이외의 편집위원은 무관함). 구체적으로 ① 편집위원이 신청학술지 외 1종의 타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1점(해당 인원이 여러 명인 경우도 관계없음), ② 편집위원이 신청학술지 외 2종의 타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며, 그 해당 인원이 편집위원회 인원의 20% 미만(19.9%까지)인 경우 0.6점, ③ 편집위원이 신청학술지 외 2종의 타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며, 그 해당 인원이 편집위원회 인원의 20% 이상인 경우(20% 포함) 0.3점, ④ 편집위원 중 신청학술지 외 3종 이상 타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 0점(해당 인원이 1인이더라도 있는 경우 해당됨)임.

으로써 1점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¹⁷⁾

2. 통합학술지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국제대학 양대 학술지의 예산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처음에는 연 2회 통합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통합학술지의 재정을 확대하는 사업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통합학술지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연구소의 연구비 오버헤드(overhead) 가운데 일부를 학술지 사업예산으로 보충하는 방안, 통합학술지의 잡지광고료 수입, 원고 투고료 및 게재료 수입, 기부금 수입, 학술지 정회원 및 준회원(대학원생 대상)의 회비 수입 등이 재정확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합리적 구성과 운영

통합학술지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을 전국적으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분야별 전문가로 학내·내외 인사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들이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열정적인 노력으로 통합학술지가 궤도에 오르도록 하는데 회원교수 모두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가 요구된다. 편집위원회의 조직체계는 국제대의 특성상 인문, 상경, 법정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편집위원장의 선출은 국제대 내부구성원 교수 중에서 학장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단대회의를 통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는 통합학술지를 전문성, 국제성, 개방성을 원칙 하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고·심사·윤리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는 연2회 정기적으로 6월말과 12월말 통합학술지를 정시 발행해야 하고, 게재논문들을 cyber상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 논문게재 및 탈락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장 년 40-60편, 1회당 20-30편의 논문을 확보하도

17) 별도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제정하고, 규정의 명칭은 자율로 할 수 있음(즉, 내규, 시행세칙 등으로 제정된 경우도 인정함). 연구윤리 규정의 구체성 및 준수여부 등은 향후 학술지 평가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음. 구체적인 점수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1점, ②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0점임.

록 노력해야 한다. 게재논문의 초록, 주제어 등 형식적 요건을 학진평가 수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통합학술지는 최초 발간후 3년차에 학진 등재후보지의 신규평가에 응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등재후보지의 커트라인인 70점 중에서 점수획득이 가장 용이한 체계평가에서 약 40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고, 패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내용평가에서 30점 정도 획득하여 통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70-80%의 학진 신규 등재후보지 선정율을 고려할 때, 국제대 통합학술지의 등재후보지 목표는 결코 실현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통합학술지에 대한 수요관리 및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당분간 통합학술지에 대한 안정적 투고수요의 여건을 조성·유지하기 위하여 국제대 교원성과급기준 상에 있는 대학 및 연구소 논문점수를 최소한 5점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등재후보지 수준인 7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유인구조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향후 학진 등재후보지화의 목표달성 시기까지 필수적인 유인구조 장치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심사에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지원금을 적절하게 혹은 상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논문 투고유인을 확충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통합학술지의 성공과 발전의 요체는 결국 ‘돈’, ‘사람’, ‘일’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단계별로 재정적 안정성, 편집위원의 전문분야별 구성 및 편집위원회 조직의 합리적 운영, 소속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 등이 모두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통합학술지의 발전전략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합학술지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이제 막 출발한 학술지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진 등재학술지로서의 최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대 회원 교수들의 협력과 지지

통합학술지가 출발하더라도 향후 국제대 회원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에는 ISSN이 등록된 「국제해양문제연구」지로 시작하지만 향후 통합학술지의 명칭을 다시 정하고 학술지의 학문적 정체성(identity)을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¹⁸⁾ 통합학술지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회의 운영이 궤도에 오르도록 다방면의 협력과 지원을 다 해야 한다.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과 외국의 대학 등에 통합학술지를 홍보함으로써 회원수와 논문투고율을 확대하고 동시에 적절한 논문탈락률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투고기준, 심사기준, 그리고 윤리규정을 제정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회원수 확충을 위하여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자에게 회원 자격기준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연 4회 발간되는 학술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장기 재정사업 및 발전방안을 구상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향후 국제대 회원 교수들이 상호 대화로 합의하고 협력·추진해야 할 일들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대학 회원 교수들의 통합학술지에 대한 애정, 공통된 인식과 이해, 그리고 협력의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진 학술지가 되는 과정에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에는 특히 국제대학 학장과 연구소장의 적극적 리더십(leadership)이 필요한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소속 회원교수들의 협조적 분위기와 공동체적 신뢰가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V. 맺음말

국제대 양대 학술지의 통합배경은 1998년 이래 추진되어 온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사업이라는 외부환경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국제대 발간 양대 학술지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학

18) 앞의 설문조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통합학술지 명칭은 학술지가 추구할 정체성(identity)을 고려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양인문사회분야 전문학술지로 할 것인지 혹은, 일반 인문사회과학 학술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명칭 합의과정에서 국제대 학장과 단대회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참고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에 사건을 포함하면 향후 구성원간 합의도출이 가능한 학술지 명칭으로 「해양과 인문사회」, 「해양인문사회연구」, 「해양정책과 인문사회」, 「마린리서치」 등이 있었음.

술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자연도태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에 국제대 교수님들의 결단에 따라 양대 학술지가 통합되었던 것이 통합학술지 탄생의 내부적 배경이라 하겠다. 실제로 그 동안 국제대 발간 ‘인문사회과학논총’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발간 ‘국제해양문제연구지’의 그 주된 기고자들이 국제대학 교수들이었고, 두 학술지의 특성 또한 차별화되지 않은 채 별도 기관에서 발간되고 있었고, 최근 개정된 대학의 승진 및 업적평가관련 기준들은 대부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 논문을 요구하고 있어서 두 학술지의 인기가 매년 하락일로에 있었고, 그리고 양대 학술지를 통합하여 등재후보지화를 추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다면 두 학술지에 대한 투고 수요가 더욱 하락하여 결국 학술지의 존립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 이제 막 출발한 통합학술지가 안정적 기반위에서 학진 등재후보학술지가 되고 궁극적으로 학진 등재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조건들을 구비해 나가고 회원 교수님들이 노력을 다 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당장 몇 년 후 학진 등재후보학술지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진에서 공개한 등재후보지 평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통합학술지의 체계도 발전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합학술지의 사업발전을 위한 재정예산기반을 확충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노력도 요구된다. 편집위원회의 조직을 학진 평가조건과 국제대 여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당분간 통합학술지가 안정궤도에 오르도록 수요관리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단계별 발전전략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통합학술지가 발전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데 학장과 연구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제대 회원교수님들의 협력적 태도와 지지의사가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길화, 「학술연구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명지대 행정학박사논문, 2000.
- 고영만, “학술지 평가 및 지원정책 방향”. 학술정책 2호, 2008.
- 김두식, “초보 철법통의 논문 데뷔 이야기”, 「당대비평」 24호, 2003.
- 김성열 외,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의 효율화 방안」, 학진 협동연구 연구보고서, 2002.
- 류광철, 「학술연구지원체제의 개선방안 연구」, 충북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민현구·이현창,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단체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1998.
- 박홍석, 「학술지 평가의 배경, 사례 및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 백종섭 외, 「국내외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 손진, 「학술연구지원정책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이가중, 「학술지 평가지표 개발 및 우수학술지 육성방안」, 교육부 연구보고서, 1995.
- 이덕우, 「국내 학회 지원사업 현실화 방안과 학술지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이영수, 「학술연구지원제도 비교연구 -한·일 교육당국의 지원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창수·김신영, “학술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15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3.
- 장덕현, “학술지 평가정책에 관한 고찰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1호, 2004.
- 장선영, 「국내 학술단체 연구활동 조사, 분석 및 활성화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 연구보고서, 2007.
- 전영평 외, “선진국 인문진흥 정책 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집」, 2004.
- 조현양, 「국내외 인용색인 분석 및 학술지와 논문의 질적 평가지표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 한상덕, 「학술지 평가모형에 대한 비교분석적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
- 한상완·박홍석,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권 2호, 1999.
- 홍종선, 「KCI기반 Ko-Factor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 최귀숙·황남구, “SCI논문의 참고문헌 분석을 통한 학술지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3권 2호, 2002.
-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 등급부여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2000.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단체지원계획」, 2008.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0~2008.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20년사」, 2001.
- 한국학술진흥재단, 「KCI 기반 Kor-Factor 모형개발 기초연구」, 2005.
- 한국학술진흥재단,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262회 국회 국정감사 자료, 2006.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2007.
-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국제대학 발전방안 연구」, 2008.
- 한국해양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논총」, 1994~1996
- 한국해양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논총」, 1997~2008
- 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총」, 1998.
- 한국해양대 해운연구소, 「해운연구」, 1987~1999
-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제해양문제연구」, 2001~2007
-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양과 이슈」, 2004~2006.
- www.krf.or.kr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 www.nrf.go.kr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A Small Thought on the Future Direction and Integration Background of Academic Journal

-Focused on the Case of International Studies College, Korea Maritime
University

Choi, Sung-Doo

This paper aims at proposing the future direction and explaining the integration background of two academic journals in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exogenous reason why two academic journals had integrated was diverse impacts of evaluation project on the domestic academic journals which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has driven until now. The endogenous reason was the integration resolution of many professors in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which two academic journals should adapt well to the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 as expressed in the consequences of questionnaire survey.

In future, integrated-academic journal needs as-following tasks in order to develop best academic journal on the field of maritime humanity & social science as well as to acquire the position of the academic journal approved by NRF. First of all, integrated-academic journal must fulfill evaluation condition items of NRF's candidate list as short-term objective. Second, we must find many finance sources in order to publish journal safely and successively. Third, we must compose editing board appropriately and operate rationally. Fourth, demand management strategy and step-by-step development plan of

integrated-academic journal are made for the contribution of many papers in the journal, and in order to lead the best NRF-approved journal ultimately. Lastly, there are cross many difficult things to solve in future, which will need not only the leadership of college dean and research center director, but also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membership professors in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above of all.

주제어(Key Words)

학술지평가정책,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대학, 국제해양문제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
journal evaluation project, Korea Research Foundation,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tudy

